

특별기고

내고향 포천을 디자인하자

도시연구단체가 선정한 한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서울 노원구에 살면서 과연 내고향 포천은 어떻게 새로운 디자인을 하여야 노원구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손꼽힐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옛날에는 포천의 남쪽 관문인 축석림(빈들고개)이 가로막혀 호랑이가 밭길을 막았다지만 축석림으로 인해 기후변화와 경원선 철로 포천 통과가 동두천방향으로 선화하였으며 골짜기 심한 도로로는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축석림으로 양어벽이 상존하는가 하면 그 높이도 수가가 낮아졌다.

43번 국도가 지닌 난 문제는 국방부 소관의 군용도로로의 경우으로 방어벽이 상존하는가 하면 누구의 힘으로 허가되었는지

는 몰라도 축석림을 넘자마자 무봉리 산물에는 협오시설로 기피하는 공원묘지가 양면으로 상존하고 있어 명절 무렵이면 수도서울의 성묘객 차량이 내고향 포천의 관문을 가로막고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어 모처럼의 귀향인들의 짜증어린 불만을 토로케 하고 있다. 도대체 내고향 포천의 남쪽 관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지역이 사생결단 반대하는 공원묘원을 누가 허가 했단 말인가?

이밖에도 군용도로 징발당한 토지가 상당수 군부대 점유지로 남아있어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 접적지역을 제의하고는 최대한의 군점용지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전,현직)들의 노력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포천의 디자인과 프로젝트는 어떻게 있을까? 군주둔

지의 활용이다. 육군항공단의 개인비행기(자가용) 비행장 겸용이라던가, 군사격자의 학생 및 경기용 사격장(선수양성)화도 가능하겠으며 왕방, 수원, 보장, 삼곡산 등의 행글라이더 연습장화, 군훈련소의 군체합숙장 등이 매우 좋은 예일 것이다. 또, 관할부대가 많은 양주, 동두천 쪽으로 6군단 사령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최고급 헬기 타운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포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내천, 영평천, 한탄강을 새로 디자인하여 걷기 좋은 시냇가, 한국 최고의 자전거 데이트 코스를 만들면 어떨까?

보장산성, 고묘루산성, 청성산성을 복원하여 산성체험 등산코스(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가로수는 산벚꽃나무(자연산 산야

에 많음), 꽃길, 병꽃나무꽃길은 어떨까? 아니면 포천특유의 돌배 나무꽃길은 어떨까?

포천의 삼층신궁원(유음부, 권종, 조득남 장군)을 축석림이나 충목단에 만들면 어떨까? 3.1독립공원(포천출신 33인 권동진, 박동안, 이종일 남)을 만들면 어떨까? 다음은 교육기관의 유치이다.

이진호 군수 시절 수도 서울의 명문 사립대가 유치된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유도 분명하지 않게 취소된 일이 있었다. 유후곡 유림 군유림을 대학교 용지로 할 안하면 어떨까?(현재 신북면 소재 한양대학교 학교림이 있음) 사립여자대학교, 국책연구소, 특수연구소(광물 산림박물관의 세계화, 크나세 연구소 등 조류연구소)와 중문대의 대체의학 연구원의 확대 연구소, 경강식물원



김창중  
수필가, 본지 사설위원

의 야생화 연구소, 허브아일랜드의 아로마테라피 연구소, 솔밭물관의 건강주류연구소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옛부터 유명한 포천의 석재(石材)연구소 설립도 제안하는 바이다. 서울의 돈암동(성북구)이 성신여자대학, 우이동이 덕성여대에 의해 발전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도 서울의 디자인 도시화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세계 디자인 도시대회 서울최대비) 내고향 포천도 자연을 만나는 살기 쉬운 살기 좋은 행복한 포천으로 디자인하는데 온 시민이 총력을 경주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목회 단상



낙타 운행?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어제 몇 달만에 서울을 나갔다. 역시 서울은 더 덥고 습막히는 거라. 고유가 시대라 해도 차량은 여전히 체증현상을 보인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다. 자동차 대신 낙타를 한 마리 사서 서울 시내를 타고 다니면 어떨까?

낙타가 자동차 보다 우수한 점은 여러 가지다. 우선 낙타처럼 아무 것이나 잘 먹는 짐승은 소음이나 배기가스를 발산하여 공기를 오염시킬 염려도 없다.

동시에 자동차(승용차)보다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교통사고의 염려도 없으며 축을 염려도 적다. 날마다 비싸지는 보험료를 불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흥미도 많이 끌 것이 분명하다. 고

급 차를 몰고 다녀도 아름다운 여성이 자원해서 차를 좀 태워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으나 혹시 낙타라면 그런 미인 신청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낙타 목에 '유류절약중'이라는 간판이라도 하나 걸고 종로, 광화문 거리를 활보하면 과히 나쁠 것 없지 않다. 교통위반으로 딱지 떼일까?

사실 이같은 공상은 나의 공상이 아니라 옛날 뉴욕타임지의 유명 인기 칼럼리스트 린셀 베이커씨의 공상이다.

공상치곤 기발한 공상인데 유류값 폭등, 혼잡한 체증 교통사고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잠깐 그냥 잠깐 발을 멈추고 서서 근본 문제를 생각해 하는 세태 풍자다.

문의) 031-532-2489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⑧

밝은 정신! 건강한 정신! 만들어 드리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貧困), 병고(病苦), 고독(孤獨), 무위(無爲) 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고, 때로는 빈곤, 병고, 고독의 3악(三惡)으로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문제를 가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제적 빈곤문제, 신체적 건강문제, 사회적 문제, 심리적 고독감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후진국에서의 노인문제는 빈곤문제와 건강문제가 급선무로 되어있으나, 복지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빈곤문제가 건강문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그리고 고독감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들을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노인(84만7,000명)과 총 진료비(1조7,004억원)가 지난 2002년에 비해 각각 70%, 193%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총 진료비는 치매가 약 242만원으로 106%, 뇌혈관질환이 약 182만원으로 60%, 파킨슨병이 171만원으로 105%, 기타

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이 약 125만원으로 173% 증가했습니다.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특히 후기 고령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최근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 치매입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인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기억장애를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을 상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지능이 어린이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망'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즉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퇴행성 만성질환입니다.

현대가족의 핵가족화,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로 인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 저하 등은 치매노인의 가정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의 수발은 부양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가족들에게도 불만과 갈등 속에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부양 받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적

으로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노인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부양대책과 가족보호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가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가 절실했었습니다. 올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치매 어르신들이 요양시설, 방문요양 등의 재가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앞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삶과 가정불화,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부담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센터 및 치매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의 밝은 정신과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노인들이 사용했던 적이 있었던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며, 신체적 움직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인지기능을 지지하는 음식 만들기, 정원 가꾸기, 체조, 외출(장보기), 걷기, 음악 활동, 회상, 지남력 오리엔테이션, 어린이 방문 및 애양동물 방문과 같은 특수한 활동을 통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화, 활성화되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신재수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전화: 534-4773, 534-6880

사/인/사/고

◆한탄강서 30대男 물에 빠져 숨져

8월10일 오전 11시40분경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최모씨(37)가 물에 빠져 숨졌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1시간30여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일행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동두천 공장서 화재 8천200만원 피해

8월12일 오후 2시30분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섬유원단집착제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공장 269㎡를 태우고 30분 뒤인 오후 3시3분경 진압됐다.

동두천소방서는 이날 화재로 원단 등이 소실, 총 8천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원단집착제 제조 과정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공공보건 의료사업 ④

포천병원은 무의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주민, 보호자 없는 환자 중 만성질환 및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요하며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원 자체예산(연/71,000천원)을 투입하여 무료간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들에게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2007년의 경우 3개 병실(13병상)에서 실인원 150명(연인원4,745명)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의탁 독거 노인, 인공관절무릎수술과 연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재활을 도와 주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줌으로서 환자 가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에게 추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퇴원 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정간호를 연결 100% 관리를 해주어 환자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간병신청은 병원 입원결정이 난 무의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주민 중 중증환자로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간병인력 이 없는 경우 병동이나 진료과, 공공사업에 신청하시면 심의 후 지원해드립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포천병원 산모교실

포천병원에서는 건강한 미래 만들기 사업으로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돕기 위한 산모 교실을 운영 임신부 및 예비 아빠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 관내 임신부 및 보호

무의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 무료간병서비스

자, 예비 임신부

◆목적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하여 임신부 스스로가 자기 간호를 할 수 있고 출산에 대한 불안감해소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

◆산모교실 내용 : 매월 2회(2,4주 수요일 오후 1:30~3시)

◆장소 : 포천병원 별관 2층 회의실

◆산모교실프로그램 : 산전체조, 모유수유, 출산준비교육, 산모영양 및 이유식, 산후관리

◆교육담당 : 분만실 수간호사의 분만실 간호사, 영양사, 원내 강사(간호사)

◆신청방법 : 분만실 또는 산부인과 외래로 하시면 됩니다. (분만실 539-9257, 산부인과 외래 539-9150)

그 외 포천병원의 공공보건사업으로는 매 분기별로 포천 5일 장터에서 의사 및 간호사 10여명

이 간단한 검사와 혈압측정 등 성인병 무료검사를 해드리며 전문적 의료상담도 해주는 '포천 시민 무료 성인병 상담'과 응급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각 학교 및 단체,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천병원은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입니다.

앞으로도 포천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양현수  
공공사업과장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전화: 539-9260

#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

PRIDE & TRUST, ROK ARMY

# 육군 부사관 모집

■모집요강

구분	민간 부사관 (12기 추가)
접수기간	7월28일 ~ 8월22일
지원자격	고졸이상 또는 동등이상 학력 소지자 / 18세~27세 (예비역 30세)
신체기준	신체등위 2급 이상(남자:161~195cm, 여자:155~183cm)
평가요소	지적능력검사, 자질 및 상황 판단능력검사 / 인성검사 체력검정, 신체검사, 신원조회, 면접

※ 남자 부사관은 신체등위 3급(159~195cm)도 지원 가능(단, 심사 후 최종선발)

■대우 및 특전

- 국가공무원으로서 확실하고 안정된 직장
  - 하사임관(9급), 2년이상 중사진급(8급), 장기복무시 안정된 직장보장
  - 20년 이상 복무시 연금혜택
  - 장기복무 부사관 자녀 중·고교 학비 전액 지급, 대학 진학시 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 다양한 복지혜택과 자기발전 기회제공
  - 독신자 숙소, 군속소 제공, 의료시설 이용
  - 전국 주요관광지내 군 휴양시설 이용
  - 전문대, 사이버대학, 대학교 등 교육지원
  -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기술자취 취득기회
  - 개인 전공·자격에 따라 전문화 업무수행

육군본부

www.army.mil.kr [육군모집] : 1588-6953 [전국]  
모집부대 : (031)536-8220, 010-5072-7180